

## 탈북민 목회자들의 회심에 대한 콜라지(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

###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Conversion of North Korean Defector-Pastors: Using Colaizzi's Method

박병애 (ByungAe Park)\*\*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gospel acceptance, growth, and church planting of North Korean defectors who have become pastors. It aimed to find the meaning and the essence of Christian gospel through the experience of North Korean defector-pastors. A total of 12 pastors, including six North Korean defector-ministers and six evangelists, participated in this research. The data was obtained through one-on-one in-depth interviews and analyzed using experiential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suggested by Colaizzi (1978). As a result, 95 themes were extracted, which was organized into 24 clusters of themes, and established as five categories. The themes were rearranged into the categories of 'War between thought and truth,' 'Narrow road and wide road,' 'Meeting God,' 'Restoration of the church community,' and 'The Pilgrim's Progress as an evangelist,' to describe the meaning and structure of the participants' experience. Lastly, based on research results, concrete suggestions were presented, from the perspective of practical theology, to support North Korean missions and North Korean defector-pastors.

**Key words:** North Korean defector-pastors, conversion, Colaizzi's phenomenological study, North Korean Missions, missionary work for displaced North Koreans

\* 2022년 5월 12일 접수, 6월 3일 게재확정

\*\* 숭실대학교(Soongsil University) 기독교통일지도자학과 박사 후 연구위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369 창의관 404호, bapark1@hanmail.net

## I. 서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사라졌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남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탈북민들의 회심과 기독교 복음수용을 보라”라고 어떤 탈북민 목회자가 증언하듯이, 지금 한반도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이 기적은 북한이탈주민의 탈출과 기독교 복음의 수용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 사회는 종교의 자유가 없는 사회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들이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종교는 국가종교로써 신앙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북한인권정보센터, 2019). 특히 북한은 공산주의 사상의 철학적 기반인 유물론과 이에 근거한 주체사상으로 북한주민들의 정치, 경제적 삶을 통제해 왔기에 주체사상은 가장 강력한 헤게모니(hegemony)로써 북한주민들의 정신과 몸을 통제해 왔다(이선호, 2020). 특히 북한의 주체사상은 거대한 유사 사이비 종교로써 김일성에게 신적 권위를 부여하고 주체사상을 종교 경전처럼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의식화된 북한이탈주민들이 중국 체류 또는 남한에 입국한 후,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기적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의 기독교 복음수용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의 증거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기독교인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의 34.8%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며 불교(3.1%) 천주교(2.2%) 등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남북하나재단, 2014).

남한의 기독교 인구 증가가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독교 신앙을 지닌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은 우리 기독교 공동체에 신선한 충격이자, 다양한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계기라고 할 수 있다. 정치·사회적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을 기아를 극복하고 정치적 자유를 찾아 입국한 사람들로 보지만(권오성, 2022: 공기인, 2020) 기독교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탈북민 기독교인들은 우리 민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존재인 동시에 그들의 성장은 우리 기독교 공동체의 전체 믿음의 성장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행된 북한이탈주민들의 기독교 회심과 복음수용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부정적이거나 복음수용의 동기 등 표면적인 분석에 머무르고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들이 신앙을 갖게 된 동기는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도구, 기독교의 도덕적인 측면에 대한 감동과 함께 절대자에 의존하고 싶은 감정 등으로 보고되고 있다(유영권, 2005: 197-198; 전우택·조성아, 2003: 114-115) 살피본 바와 같이 초기 북한이탈주민들은 중국과 남한에서 생존을 위해 도구적 차원에서 기독교를 선택한 경우가 많고 특히 종교적인 차원에서는 가장 단순한 절대자에 대한 의존적 감정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절대적 의존 감정은 이미 슈라이어마허(Schleiermacher)가 그의 저서 종교론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인간이 지닌 기본적인 감정이지만 동시에 가장 낮은 수준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김승철, 2004). 두 번째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서 기

독교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과정에서 북한사회에서의 경험은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연구이다.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체제 속에서 살아온 경험 즉 주체사상과 같은 유사종교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특히 북한에서의 생활총화는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공동체 모임을 기피하고 이로 인해 교회에 출석해서도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보고된다(이수원, 2011; 김경숙, 2018; 윤현기, 2004). 북한 주민들은 인간이 역사의 주인이며 모든 것이 주관자라는 주체사상의 왜곡된 인본주의는 신본주의 신앙인 기독교와는 근본적인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은 기독교를 접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주체사상과 기독교 신앙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이 주체사상이라는 허울에 좌절하고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는 놀라운 신앙의 성장을 이룩할 수도 있다. 주체사상과 유물론적 사고가 기독교 복음에 장애가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러한 것들의 모순을 직면하고 이를 극복했을 때 북한이탈주민들의 믿음은 비약적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 복음수용은 그들의 존재 차원의 깊이에서의 경험이기에 기계적인 과정분석이나 요인분석보다는 질적 연구에 기초한 심층 분석과 이해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간 북한이탈주민들의 신앙 체험에 대한 질적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다(이순형 외, 2015). 북한이탈주민들의 종교 수용은 주체사상에 대한 부정적 기억을 지워버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과정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의 심층 구조에는 보이지 않지만 인간 존재의 기원인 신에 대한 열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 생활 그리고 중국 체류에서 절망을 경험한다. 때로는 생존을 위협하는 공포를 느끼지만 이런 공포 속에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게 되고 이데올로기가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없다는 공허함을 느끼며 이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으로 이어진다(송영섭, 2016). 하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의 기독교 복음수용이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박예영(2016)의 연구에 의하면 탈북 기독교인들은 북한 체제와 유사하게 보이는 교회 시스템에 대한 회의, 교회에 대한 갈등 특히 남한 기독교인들과 불편한 관계로 인해 신앙의 정체를 경험한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과 회의의 구조 속에서 갈등을 극복하고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기본적으로 종교에 무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신앙 성장은 일종의 단계로 진행된다. 이순형 외(2015)는 북한이탈주민의 종교발달 경험을 무경험 단계, 종교 수단화 단계, 믿음노력 단계, 믿음 생활 단계에 이어 마지막으로 일상 속 믿음 단계로서 종교가 삶이라는 단계로 발전한다고 보고했다. 람보(Lambo, 1993)는 기독교로 회심한 개인들을 연구한 후 회심의 단계를 정황, 맥락 단계에서 위기, 추구, 만남, 상호작용, 헌신, 결과의 틀에 맞추어 분석했지만 기독교가 이미 문화의 기저에 깊숙이 스며든 서방세계와 달리 기독교에 무지하거나 기독교인이 소수인 문화권에서는 자신의 분석틀과는 다를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Rambo, 1993: 43). 이런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종교적 체험에 기

초한 그들의 종교발달단계를 정리한 연구들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특수한 인구집단에 대한 상황적 지식(Situated knowledge)을 산출하여 탈북민 선교와 북한선교 전략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의 기독교 복음수용과 성장에 대하여 보고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 동향에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했던 부분이 북한이탈주민 목회자들의 기독교 회심 과정이다. 현재 북한이탈주민들은 탈북민 1세대와 1.5세대들을 합하여 목회자와 신학생이 200여명에 이른다(북한기독교총연합회, 2021). 약 3만 명을 상회하는 북한이탈주민 중 목회자와 신학생이 200명이라는 것은 매우 놀라운 수치이다. 탈북민 목회자들은 매우 특별한 비전을 품고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탈북민 목회자들은 남한에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 선교를 하고 있으며 통일 후에는 북한에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열의를 가지고 있다. 그들에게 통일 또는 북한의 문이 열리는 날은 자신의 고향으로 귀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날이다(박병애, 2020).

탈북민 목회자들의 기독교 복음수용과 회심 그리고 그들의 신앙 성장과 비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는 탈북민 목회자들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그들의 목회전략을 북한선교의 비전으로 다시 세우고 북한복음화 전략의 기초를 세움에 있어 통찰력 있는 지식과 이해력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탈북민 목회자에 대한 연구가 소수였을 뿐 아니라, 그들의 신앙 체험과 관련된 연구는 조성봉 외(2018)의 “탈북민 목회자의 신앙 성장 요인분석”과 박병애(2019)의 “탈북민 목회자의 복음수용과정 분석”이라는 논문이 존재할 뿐, 탈북민 목회자들의 복음수용의 의미 그리고 구조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했다. 본 연구에서는 탈북민 목회자들의 회심과 성장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들의 체험 속에 나타난 복음의 의미와 구조를 분석하여 탈북민 목회자들의 신앙과 목회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함께 이에 근거하여 국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선교전략과 중국 등을 통한 우회적 북한 선교전략을 위한 실천신학 차원의 제언을 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탈북민 목회자들의 회심과 신앙의 성장에 의미와 본질 구조는 어떠한가? 콜라지(Collaizi)의 현상학적 방법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 II. 연구 방법

### 1. 현상학적 연구 접근의 의의

본 연구는 북한출신 목회자들의 회심 경험을 구체적 내용과 맥락은 물론 특히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현상학은 사실학이 아니라 본질학이며 가장 주된 탐구의 목적은 의미의 발굴이다(이남인, 2007). 탈북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기독교 복음의 수용과 회심과정은 전 생애에 걸친 역동적 과정인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 교회공동체 관계가 새롭게 구성되는 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상학적 연구 접근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현상학적 연구는 후설(Husserl)의 아이디어인 “사태 자체에로(Zu den sachen selbst)”라는 표현이 시사하듯 연구자나 주류 관점이 아닌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한 현상 자체로 돌아가 엄밀하면서도 보편적인 의미를 발굴해 내는 것이다. 탈북민 목회자들의 신앙체험은 그들의 생애 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고 그들의 경험에 기반하여 구성된 의미와 본질만이 현상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후설의 선형적 현상학(Transzendente Phänomenologie)에서 영향을 받은 기술적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후설은 20세기 초반 심리학계를 주름 잡았던 경험심리학, 즉 인간의 심리적 경험을 조작하고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드러내려는 심리학적 주류태도에 반대하여 기술적 심리학 연구를 제시했다. 후설은 인간들이 의식을 통한 경험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이근무, 2019). 이와 같은 후설의 현상학도 그마를 방법론으로 발전시킨 다양한 연구자들 중 본 연구에서는 ‘기술적 현상학적 연구((Descriptive phenomenology)’의 개척자라고 알려진 지오르기(Giorgi)의 제자이자 경험의 기술과 함축적인 구조를 제시한 콜라지(Colaizzi, 1978)의 체험적 현상학적 연구로 접근하고자 한다. 콜라지는 후설이 제시한 현상학적 환원의 방법을 통해 개인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후설이 제시한 현상학적 환원은 세계에 대한 무비판적이고 소박한 존재 믿음의 태도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자유 변경과 본질 직관을 통해 현상을 드러내는 것이다.

## 2. 연구 참여자 선정

연구 참여자는 마일스와 휴버만(Miles & Huberman) 그리고 살다나(Saldana, 2018)가 제시한 질적연구의 표집 유형 중 강도 표집으로 선정했다. 강도 표집이란 연구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에 대해 충분한 동시에 강렬한 경험을 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선정하는 것이다. 강도 표집을 통해 현상의 다양한 측면과 함께 그 의미를 발굴할 수 있다. 콜라지는 그의 대표적 연구(Colaizzi, 1973)인 “심리학에서의 성찰과 연구: 배움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Reflection and Research in Psychology: A phenomenological Study of Learning)에서 배움의 의미와 본질을 규명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콜라지의 전례를 따라 12명의 탈북민 목회자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했다. 연구 참여자는 구체적으로 세평적 사례선택 방법을 통해 선정했다. 연구자는 탈북민 교회를 돕고 있는 서울시내 5개 교회의 관계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 등을 설명했고 연구 참여자 소개를 의뢰했다. 그들의 소개를 받아 모두 12명의 참여자를 선정했다.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 사회학적 정보 및 신학공부 목회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Table 1. The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background of the research participant

연구 참여자 (research participant)	성별 (gender)	나이 (age)	남한 체류기간 (period of stay in South Korea)	복음을 접한 년도 (Year of encounter with faith)	복음을 접한 장소 (place of faith)	직업 (job)
연구 참여자 1	남	50대	24년	1992년	중국	목사
연구 참여자 2	남	40대	13년	1996년	중국	전도사/신대원
연구 참여자 3	남	40대	19년	1998년	중국	목사
연구 참여자 4	여	40대	19년	1999년	중국	전도사/신대원
연구 참여자 5	남	40대	9년	1998년	중국	목사
연구 참여자 6	남	50대	17년	1998년	중국	목사
연구 참여자 7	남	40대	17년	2004년	한국기도원	목사
연구 참여자 8	여	40대	16년	1998년	중국	목사
연구 참여자 9	여	40대	15년	2006년	한국교회	전도사/신대원
연구 참여자 10	여	30대	14년	2017년	한국교회	전도사/신대원
연구 참여자 11	남	50대	13년	2007년	중국	전도사/신대원
연구 참여자 12	여	30대	11년	2011년	한국교회	전도사/신대원

\* 연구 참여자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나이는 연령대로 표시하였고, 탈북 년도 순으로 정리하였다. 연구 참여자 선정은 2019년 6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소요되었다.

### 3. 자료 수집

자료는 연구 참여자들과 일대일 심층면담을 수행하여 구성하였다. 콜라지는 심층면담 수행 전, 형식적 진술(Formal statement)문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형식적 진술이란 자신의 이론적 관점이나 견해 등을 반성적으로 검토하고 여기에 기반 하여 질문목록을 작성하는 것이다. 연구자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기독교 수용과 북한의 종교문제 등을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형식적 진술문을 구성했고 이를 중심으로 반구조화 된 인터뷰를 진행했다. 형식적 진술문은 다음의 표와 같다.

Table 2. Formal Statements

번호 (number)	질문 내용 (Question Contents)
1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정보
2	처음 기독교 복음을 접하게 된 계기와 장소, 이와 관계된 사람들
3	기독교 복음을 접했을 때 느낌이나 정서 특히 북한의 사회주의 주체사상과 선군사상과 관련하여
4	복음을 수용한 후 신앙이 성숙해진 과정과 내용,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준 다양한 맥락들
5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하게 된 시기와 이유, 장소, 영향을 준 사람들

6	목회자의 길을 걷기로 한 후, 도움 받은 사람들과 본인의 노력들
7	신학생 시절(목회자시절) 마음의 동요를 일으킨 사건이나 계기, 맥락, 영향을 준 사람들
8	세상적 유혹을 딛고 다시 목회에 진입하게 된 개인들의 이야기
9	북한이탈주민 목회자로서의 목회어려움과 극복 내용
10	남한교회 공동체와의 관계, 상호작용
11	북한선교 계획과 통일 후 선교계획과 준비에 대한 내용

연구 참여자들과는 자료의 포화와 충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수의 인터뷰를 수행했다. 연구 참여자 1인당 5회, 1회 50분의 인터뷰 시간이 소요되었다. 모든 인터뷰는 참여자들의 사전 동의를 얻어 녹음을 했고 이를 문서 본으로 변환했다. 심층면담과 연구 참여자 선정 기간은 중복된다.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와는 다르게 자료 수집이 종료된 후,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고, 다시 연구 질문을 구성하는 순환적 관계 구조로 이어진다. 심층 면담 기간은 2019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진행하였다. 심층 인터뷰는 연구 참여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하여 그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수행했다. 참여자들의 목회지, 신대원 회의실 등에서 수행했다.

#### 4. 자료 분석과 기술

자료 분석은 콜라지가 제안한 7단계 자료 분석 절차에 따라 수행했다.

1단계에서는 자료전체를 검토하고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들과 개별적 인터뷰를 전사한 녹취록을 5회 정독했다.

2단계는 연구 참여자들의 인터뷰 자료에서 유의미한 진술을 추출했다.

3단계는 의미 발견 단계로써 유의미한 진술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암묵적 의미를 탐구했다.

4단계는 주제 결집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연구자는 의미를 주제로 결집했다.

5단계는 포괄적인 기술단계이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의 체험을 기술했다.

6단계는 명증한 진술로의 전환단계인데 5단계에서 기술한 내용을 명료한 기술로 전환했다. 이 명료한 기술로 전환한 과정에서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에서 중요시하는 현상학적 괄호 치기와 자유 변경 절차를 따랐다.

7단계는 연구 참여자를 통한 타당성 검증단계이다. 연구자는 자료의 분석과 기술이 끝난 후 연구 참여자들과 다시 만남을 가졌고 그들로 부터 연구자가 구성한 주제, 의미, 기술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 받았다. 참여자들은 연구자의 분석과 기술에 별다른 의의를 제시하지 않았다.

## 5. 연구의 윤리적 문제와 타당성 재고

### (1) 연구의 윤리적 문제

첫째, 본 연구는 탈북민 목회자들의 회심을 다른 연구로써 매우 예민한 주제이다. 연구 참여자들의 정보와 북한과 중국 등에서 활동이 노출되면,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위해가 가해질 수도 있다. 연구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안전과 사생활 보호에 만전을 기했다. 연구 참여자들의 출생지 학교 등은 모두 부호나 익명으로 표시했다. 본 연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고려하여 윤리지침을 구성했고 이를 송실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에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았다(심의번호: SSU-202202-HR-387-1).

둘째, 연구 참여자들의 자발적 동의를 준수했다. 참여자나 소개자를 통한 회유나 강권 등을 하지 않았고 심층인터뷰 전에도 참여자들의 자발적 동의를 확인했다.

셋째, 연구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 후에 동의를 구했다. 연구자는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직접적 이익은 없으나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기독교 복음수용과 회심에 대한 연구로써 북한선교에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연구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연구에서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보장했다. 본 연구는 학문적 목적과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선교를 위한 귀중한 목적으로만 사용될 뿐, 연구 참여자의 사적 이익이나 상업적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 이외에도 연구 참여자는 자신에 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고, 이를 폐지나 삭제 또는 변경할 수 있음을 보장했다. 또한 후속 연구를 위해서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

### (2) 타당성 재고 전략

연구자는 현상학적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접근했다. 첫째는 리보우(Liebow, 1993)가 제시한 장기간에 걸친 라포(Rapport) 형성으로 접근했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 선정부터 논문 기술 시까지 2년 이상의 라포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장기간에 걸친 라포는 연구자가 지니고 있었던 학문적 편견이나 선입견 등을 최소화하고 연구 참여자들의 반응성은 물론 그들의 왜곡 등을 최소화 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둘째, 링컨과 구바(Lincoln and Guba)가 제시한 동료지지집단 구성으로 접근했다(Lincoln and Guba, 1985). 연구자는 중국에서 탈북민을 지원했던 선교사 1인, 북한이탈주민의 선교와 교회개척을 지원하는 목회자 1인, 북한학 전문가 1인, 그리고 현상학적 연구방법론 전문가 1인으로 동료지지 집단을 구성했다. 동료지지집단은 연구 참여자 선정부터 자료 분석과 기술 등에 있어 조언을 했고 연구가 방향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했다고 판단된다.

셋째, 덴진(Denzin)이 제안한 네 가지 유형, 즉 자료의 삼각화, 연구자의 삼각화, 이론의 삼각화, 방법론적 삼각화에서 자료의 삼각검증법(triangulation)으로 접근했다(Denzin, 1978). 연구자는 참여자들의 심층 면담 기록 외에도 자료의 삼각화 차원에서 참여자들이 출연한 유튜브, 개인 기록물, 단체 카톡, SNS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보조 자료로 활용하였다.

### III. 연구 결과

연구 참여자들의 구술 자료를 분석한 결과 95개의 주제가 출현했다. 이와 같은 주제들을 경험의 유사성 차원에서 결집하여 보다 추상화되고 참여자들의 경험을 수렴할 수 있는 24개의 주제결집을 했다. 그리고 이를 다시 ‘사상과 진리의 전쟁’, ‘좁은 길과 넓은 길’, ‘하나님과의 만남’, ‘교회 공동체의 회복’, ‘전도자로서의 천로역정’이라는 5가지 범주에 배열했다. 자료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Table 3. List of topics, collection of topics, and categories

범주 (category)	주제 결집 (collection of topics)	주제 (List of topics)
사상과 진리의 전쟁	인본주의 사고의 존재	근경에 처해도 주체사상의 존재로 인해 자기 힘으로 극복하고자 함 성경을 생명보다는 윤리 도덕적으로 좋은 책으로만 받아들임 부자와 고학력자도 믿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궁금증
	유사종교와 기독교 분별 지혜의 부재	기독교가 김일성 숭배와 비슷하다고 판단 한 후 발길을 돌림 김일성 우상화 작업과 기독교의 하나님 경배가 구조적으로 다름이 없다는 회의 교회생활은 북한에서의 생활총화와 다름이 없다는 불만 사도행전은 김일성의 혁명노작을 모방했다는 오해
	골수까지 퍼진 주체사상의 독	복음을 전달 받았지만 주체사상에 물든 영혼이었기에 회피 함 북한에서 배운 반기독교 교육으로 인해 기독교와 성경에 대해 근본적인 불신을 갖고 있었음 회심에 가장 큰 장애는 김일성 사상 주체사상이 영혼에 까지 중독되었기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음
	유물론적 세계관의 장애	창세기 천지창조는 유물론적 사고에 물든 지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음 성경 통독학교에서 무수히 성경을 읽었지만 과학적 사고에 물들었기에 받아들일 수 없음 유물론 교육을 받았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머리로는 받아들였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함 머리로는 받아들였지만 보이지 않기에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비과학적인 성경공부를 해야만 하는 것에 대한 반감

좁은 길과 넓은 길	성장이 지체 된 믿음의 씨앗	복음은 받아들였지만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과 나의 자아가 곤고함 남한에서 성공하겠다는 생각만으로 꼭 차있을 때에는 애써 썩든 복음의 씨앗도 개화하지 못함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의 기로	자신의 운명은 자신의 힘으로 개척하여 남한의 재벌과 같이 돈을 벌고 싶은 욕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순교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으로 주저함 온전히 순종하는 삶은 가난과 고통이라는 생각에 결단하지 못함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의 삶은 주체사상이라는 양다리 걸침 한국의 세속주의에 물들어 신앙이 귀찮은 것으로 전략 돈과 주님의 길 사이에 방향함
	스스로 짊어진 십자가	억지 순종에서 자발적 순종으로 바뀌자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겠다는 새로운 각오 개혁교회는 어렵다는 말을 듣고 주저했으나 이미 무수한 기적을 체험 했기에 자신감으로 도전 북한에서는 반동분자의 자손이라 충성을 하고자 해도 불가능했으나 교회에서는 하나님에게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김
	받은 사랑의 보답 전도	북한 동포와 남한에 있는 탈북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지상명령 소망이 생기자 북한 복음 전파와 통일의 겨자씨로 헌신하겠다는 각오 하나님과 남한 교인들에게 사랑을 받았으니 북한 주민들에게 되갚아야 한다는 생각 복음으로 독재치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한동포를 구하겠다는 헌신성
하나님 과의 만남	여호와 이레 의 체험	성경을 온전히 받아들인 후, 자신의 탈출과 남한입국이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음 북한과 중국에서 고생한 삶으로 생각했으나 하나님이 택해서 불러주었다는 체험 탈북민 목회라는 험한 길을 선택하자 하나님의 예비하신 사람들이 찾아옴 경제적으로 신학공부를 포기해야할 때마다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나타남 교회와 후원자의 지지로 신대원을 무난히 졸업 함 탈북민 신학생들에게 주는 신학교의 장학금 혜택
	체험으로 거 듭남	골수에 박힌 주체사상을 청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체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자 평생을 지켜온 신념이 흔들림 기독교를 종교로만 알았으나 생명으로 받아들임
	자기의 부인	나의 삶이 나의 욕망과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음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삶을 선물로 주심 택함을 받은 동시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자 아집으로 뭉쳐진 삶이 산산이 부서짐 실패를 한 후, 남한 사회에 대한 무서움보다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함을 자각 김일성의 노예에서 벗어나 나의 주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바뀜 신앙이 성숙되어 감에 따라 제일먼저 버린 것은 나의 이기심
	모순을 일깨 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이 있을 후 주체사상의 모순을 직시 함 주체사상은 성경을 복사했지만 사랑만큼은 복사하지 못했다는 각성 성령체험은 지성을 믿어 온 나를 완전히 바꿈 남한교인들의 호의를 편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밑바탕에는 사랑의 체험
	위대한 체념 후 축복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삶을 선물로 주심 운명의 주인 자리를 포기했을 때 생명수가 쏟아 오르고 지혜가 생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했을 때 현실에서 기적이 일어남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나의 삶이 천국으로 변함

	<p>순종을 통한 무한 자유</p>	<p>하나님의 구속 안에서 자유를 느낌 예수님의 순종을 닮고자 간절하게 기도하고 눈물을 흘림 교만함을 내려놓고 약함을 인정하자 능력이 생성 됨 기도가 거듭 될수록 자만심이 사라지고 겸손해짐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무한한 자유를 느낌</p>
	<p>생존을 위해 선택한 교회</p>	<p>의식주의 문제를 도움 받고자 도구적 목적으로 교회에 출석함 중국에서는 생존을 위한 도피처로 교회를 선택 중국에서 노숙을 하다가 교회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출석함 몸은 교회에 의탁 했으나 마음은 세상으로 향해 있음 신앙도 배우고자 하는 열망도 없이 교회가 주는 편리함만 믿고 따라감</p>
<p>교회공동 체 회복</p>	<p>높은 기대로 인한 실망</p>	<p>교회는 지지도 있지만 탈북민이라는 편견으로 인해 신앙이 후퇴함 교회 내에도 빈부격차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교회 밖으로 나가고자 함 교회에서의 믿음은 돈으로 측정한다는 오해 교회의 지원이 줄어들자 베푼 고마움보다는 배신감을 느낌</p>
	<p>피해의식</p>	<p>주체사상에 속았기에 기독교와 성경에 다시 속지 않겠다는 저항 탈북민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남한교인들에 대한 피해 의식 거의 한 평생을 적개심을 품고 살았기에 교회에서도 쉽게 분노함 충분한 헌금을 하지 못하자 아무도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지심을 느낌 남한 교인들 틈에 낀 개밥에 도토리 같다는 인식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한 정권이 떠올라 갈팡질팡함</p>
	<p>사랑으로 회 복한 공동체</p>	<p>사람에게는 실망했으나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교회생활이 즐거워 짐 나의 고통을 진심으로 공휼히 여기는 교우들의 사랑 교회에서 사랑과 지지를 받은 후에 다른 사람의 슬픔과 고통을 아파할 수 있는 능력이 생성 됨</p>
	<p>하나님의 사 랑에서 발견 한 신비함</p>	<p>교학적 전문직 종사자들이 위험을 무릎 쓰고 중국에서 선교를 하는 것을 보고 이타적 삶이 무 엇인지를 깨달음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고 탈북민을 보호해 준 목사의 실천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탈북민 목사를 보고 자신도 감화를 받음</p>
<p>전도자 로서 천로역정</p>	<p>복음 맥락에 서 정체성 재 구성</p>	<p>탈북민이라는 편견보다는 나는 통일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신대원 입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가 위한 통과 의례 나의 삶은 북한정권의 피해자가 아니라 주체사상이라는 죄악에 끌려 다닌 삶 성경을 과학으로 해석하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하는 관점의 전환</p>
	<p>살아있는 기 적의 증거</p>	<p>성경에 기록된 기적이 모습만 바꾸어 나에게도 일어남 나의 회심은 기적이 사라진 줄 아는 사람들에게 기적의 증거</p>
	<p>예루살렘의 회복 북한 복 음화</p>	<p>나의 삶에서 일어난 기적을 북한 주민들에게도 체험하게 하고 싶음 외국유학의 길도 있었으나 탈북민들을 위해 개척을 시작함 개혁교회는 어렵다는 말을 듣고 주저했으나 이미 무수한 기적을 체험 했기에 자신감으로 도전 나의 남은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과 북한 복음을 위한 삶</p>

일사각오의 선교의지	순교자가 되도 영광이라는 각오로 북한선교에 매진 내가 선 자리에서 죽고자 할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림
이 땅에서 천 국 건설	가시밭길이라고 생각했던 목회자의 길이 영적으로는 꽃밭으로 변함 몸은 지하교회에 있지만 영혼은 찬란한 하늘나라에 있음 누울 자리와 배고프지 않음도 하나님의 커다란 선물

## 1. 사상과 진리의 전쟁

### (1) 인본주의 사고의 잔재

연구 참여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신앙고백을 했지만 겨자씨 같은 믿음이 성장하는 데는 많은 장애가 있었다. 그 장애 중 하나가 인본주의라고 할 수 있다. 참여자들은 부자와 고학력자도 믿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북한 체류 때부터 골수에 박힌 주체사상으로 인해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기보다는 자기 힘으로 극복하고자 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윤리 도덕적으로 좋은 책으로만 받아들였다. 이는 칸트의 종교 도덕 관과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주체사상은 철저한 인본주의이고 인본주의의 정점이었기에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데 걸림들이었어요. (중략) 내 운명의 주인은 내 자신이기 때문에 내가 뭐든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연구 참여자, 2)

### (2) 유사종교와 기독교 분별지혜 부재

연구 참여자들은 북한의 통치체제가 교회와 같고 주체사상은 성경을 모방한 것이라고 구술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남한에 입국한 후 신앙생활을 하면서 발전된 것이고 초기에는 김일성 숭배와 하나님 숭배는 동일하다고 인식했고 김일성 숭배에 희생당한 자신이 또다시 하나님을 숭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은 김일성의 항일 빨지산 투쟁을 기록한 혁명노작을 모방했다는 오해를 했다. 특히 주일뿐만 아니라 새벽기도, 수요일예배, 가정예배로 이어지는 교회의 예배 시스템을 북한의 생활총화와 동일하다고 인식했다. 북한에서는 각 지역에 거점을 정하고 생활 총화라는 미명아래 주민들을 결집시키고 교육을 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생활총화에 싫증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남한에 와서도 이를 되풀이한다고 생각했다.

“목사님 앞에 성경책을 내동댕이쳤습니다. 북한에서 왔다고 나를 무시하십니까? 아니 이 책에 내

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있고 진리가 있다고 했는데, 이 책을 읽어보니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로작을 모방한 책이네요.” (연구 참여자, 1)

### (3) 골수까지 퍼진 주체사상의 독

연구 참여자들은 회심에 가장 큰 장애는 주체사상이라고 이야기 했다. 참여자들은 메시지를 전달 받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지만 그들의 영혼은 이미 주체사상에 중독되었기에 본능적으로 복음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북한에서 받은 기독교에 대한 적대적 교육은 기독교는 물론 성경에 대해 불신을 갖게 했다. 이러한 불신은 복음을 수용한 후에도 상당기간 지속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주체사상이 독이라는 의미를 구성했지만 그 독이 자신들의 골수에까지 퍼져 영혼까지 장악했다고 구술했다.

“미국과 남조선은 우리의 철천지원수라는 적개심으로 세뇌시킨 후, 주체사상을 주입하면 거부감 없이 그대로 주체사상을 받아들입니다. 주체사상은 사상을 넘어 신념이었고 종교였어요. 하나의 신앙이었지요.” (연구 참여자, 4)

### (4) 유물론적 세계관의 장애

연구 참여자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선교사들에게서 전도를 받았고 성경통독학교에서 성경을 읽었다. 성경통독학교는 참여자들에게 신변의 안전과 주거와 음식을 제공했지만 참여자들은 성경에 대해 비과학적이라는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연과학적 사고와 사회주의 과학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고 교육받았기에 그들의 사고는 유물론적 사고에 젖어있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창세기의 천지 창조는 믿을 수가 없었다. 무에서 유가 창조된다는 것은 변증법적 사고로는 도달할 수 없는 인식의 세계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유물론적 사고체계에서는 눈에 보이고 이성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만 믿을 수밖에 없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위적 노력을 다해도 마음에서는 여전히 반감이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복음은 마음과 영혼이 아닌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의미구성 하였다. 이렇듯 유물론적 세계관은 복음의 씨앗을 싹트지 못하게 하고 썩게 할 수 있는 조건이기도 했다.

“주체사상의 세계관은 유물론, 신은 없다고 출발 하지요. 창세기 1장 1절을 읽고 바로 책을 닫아버렸어요.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말씀들은 인간의 상식과 지능으로는 절대 믿을 수 없는 말씀 구절들이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허구라고 생각했어요.” (연구 참여자, 9)

이와 같은 참여자들의 구술은 ‘인본주의 사고의 잔재’, ‘유사종교와 기독교 분별지혜의 부재’, ‘골수까지 퍼진 주체사상의 독’, ‘유물론적 세계관의 장애’, 라는 주제를 결집했고 이러한 주제들은 연구 참여자들이 기독교의 진리와 주체사상 유물론적 사고와의 전쟁을 치른 경험이라고 판단되었다.

## 2. 좁은 길과 넓은 길

### (1) 성장이 지체된 믿음의 씨앗

연구 참여자들은 중국에서는 신변의 위협과 배고픔 등으로 고통 받았지만 영혼은 밝았다고 했다. 하지만 남한에 온 후, 배부름을 경험했지만 오히려 영혼이 곤고해졌다고 구술했다. 이러한 영혼의 곤고함은 그들의 마음의 밭에 떨어진 복음의 씨앗이 싹트지 않았기 때문이며 신앙이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참여자들은 북한과 중국에서의 불행한 삶을 남한에서 복구하겠다는 생각으로 꼭 차 있었고 세사적 성공을 통해 이를 달성하고자 노력했을 때 복음의 씨앗은 싹트지 못했다고 구술했다.

“3번째 북한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 서원기도를 했지요. 살아서 나간다면 주이 종이 되겠다고... 그런데 막상 한국에 오니 돈을 벌고 싶은 거예요. 강남에 베이커리 창업을 며칠 앞두고 있는데 S교 회 목사님이 너 그러다 아줌마 되서 신학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연구 참여자, 8)

### (2)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의 기로

남한입국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자유 그 자체였지만 남한의 물질문명에 흔들리기도 했다. 주체사상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참여자들은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자신들의 삶은 주체사상이라는 양다리 전략을 사용했고 이런 전략은 자신의 운명은 자신이 개척하여 많은 돈을 벌겠다는 욕망으로 이어졌다. 연구 참여자는 돈과 주님의 길에서 방황했다. 참여자들은 중국에 있을 당시 위협에 처했을 때 자신이 울무에서 빠져나가면 평생을 주님께 바치겠다고 서원기도 했지만 한국의 풍요로움과 물질문명을 접하자 신앙은 귀찮은 것으로 인식하기도 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고자 했으나 순종하는 삶은 가난과 고통이라는 생각에 빠지기도 했다. 이러한 인식은 중국에 체류한 선교사들의 일생생활을 목격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선교사들은 극도의 내핍생활을 했고 북한이탈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들의 의식 생활을 최대한 절약해야만 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것이 순종이라는 생각보다는 외형적 궁핍만 기억했다. 따라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간다는 것은 고통과 궁핍의 길이라는 생각으로 굳어졌다. 참여자들은 세상으로 가는 넓은 길과 가시밭길과 같은 하나님의 길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었다.

“졸업 전 실습 나갔다가 대기업에 취직이 되었는데 솔직히 대기업에 가고 싶었지요. 제가 몽골 감옥에서 서원기도 했는데 대기업으로 가면 잘 되겠어요? (중략) 그런데 C목사를 보면 두려워 신학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침 먹고 나면 점심 끼니 걱정을 하는데... 저렇게 고생을 하는데 누가 신학을 하고 싶겠어요?” (연구 참여자, 3)

### (3) 스스로 짚어진 십자가

참여자들은 세상으로 향하던 길을 돌려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는데 그 첫 번째는 십자가를 스스로 짚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감옥과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기도는 억지 순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한 것이라고 의미를 구성했다. 하지만 남한에서 갈등을 극복하고 자발적인 순종을 하겠다고 결단하자 자신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살아야겠다는 각오로 바뀌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교회에 대한 충성과 헌신이 자기의 희생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의미를 구성하기도 했다. 북한에서 소위 반동분자의 자손으로 낙인찍힌 참여자들은 국가에 충성을 다하고자 해도 대상이 없었다.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에게 충성을 다 할 수 있는 장소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중대형 교회에 초빙된 경우도 있었고 외국 유학의 길도 있었다. 하지만 모든 참여자들은 개척교회를 선택했다. 그들이 개척교회를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는 개척교회가 처한 상황을 이야기 해주며 만류하기도 했다. 하지만 참여자들에게서 개척교회는 남한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방황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숨 쉴 수 있는 안식의 장이자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절대적 장소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십자가를 짚어졌을 때, 하나님은 개척 교회의 지하여두운 골방에 강림했다는 표현을 하기도 했다.

“J교수님이 소개해 주신 대형교회에서 좋은 조건으로 오라고 했어요. 하지만 같은 단지아파트에서 탈북민 자매가 자살을 하고 신천지에 빠지는 것을 보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야겠다는 생각에 탈북민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지요.” (연구 참여자, 8)

### (4) 받은 사랑의 보답 전도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은 물론, 복음을 전한 선교사 그리고 남한교회의 목회자와 교인들의 도움으로 점철되었다고 구술했다. 참여자들은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선교사, 교회의 중직들, 목회자를 보내 도움을 주었다.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 음식물을 전달한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고 믿고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남한교인들의 사랑에 빛진 삶이라고 의미를 구성했다. 이러한 의미를 구성하자 그들의 빛을 갚는 삶은 북한 동포와 남한에 거주하

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이는 지상명령이자 소망이었다. 참여자들은 모두 북한의 복음 전파와 통일의 겨자씨가 되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으며 독재 치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한 동포를 구하겠다는 사랑과 헌신의 결단을 하였다.

“저는 고향인 황해남도 신원군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중국에서 오셨고 외가가 있는 신원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탐사대 차량을 운전하셨기에 광산이 많은 함경북도에서도 많이 살았지만 고향 황해도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북한 주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연구 참여자, 5)

### 3. 하나님과의 만남

#### (1) 여호아 이레의 체험

연구 참여자들의 믿음은 성경을 온전히 받아들인 후 성장하기 시작했다. 자신들의 탈출과 남한 입국을 운으로 생각했고 자신들의 노력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체험한 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깨달았다. 연구 참여자들은 북한과 중국에서의 삶은 고통스러운 고난의 삶으로 인지했으나 하나님이 택하기 위해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기 위한 중간 정류장으로 인식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하나님은 아무런 계획 없이 자신들을 이 땅으로 불러들인 게 아니고 신학공부를 할 수 있는 기반, 교회 개척할 수 있는 기반을 미리 예비해 놓고 불러들였다고 믿고 있다.

“중국에서 복송되어 감옥에 있다가 죽기 직전에 나왔어요. 살아나 올 대상이 아니었는데.. (중략) 한국에 들어와 보니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하셨다고 하더군요. O교회 무릎선교회와 다른 선교회에서도 저를 위해 엄청 기도했다고 하더군요. 감옥에서 살아나가면 주의 종의 길만을 가겠다고 서원한대로...” (연구 참여자, 6)

#### (2) 체험으로 거듭남

연구 참여자들은 기독교가 체험의 종교라는 것을 자신의 체험으로 받아들였고 그 체험으로 거듭났다. 골수에 박힌 주체사상으로 인해 흔들리기도 했으나 성령체험은 주체사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자 평생을 지켜온 신념이 흔들렸다. 참여자들은 초기에는 기독교를 도덕, 선한 일을 가르치는 윤리적인 책임으로만 받아들였으나 생명으로 받아들였다.

“기도원에서 그분이 아파하시는 절규와 피 흘리는 모습이 보여 지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나는 너를 품어 주는데 너는 왜 북한을 품지 않니?’ 그때 대성통곡하고 울었어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3박 4일 수련회가 끝날 때 북한을 품기 위해 신학대학에 진학하겠다고 했어요.” (연구 참여자, 7)

### (3) 자기의 부인

참여자들은 체험을 한 후에는 자기를 부인했다. 자신의 삶이 욕망과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북한탈출과 중국체류에서 깨달았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결단을 했을 때 새로운 삶이 선물로 온다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다.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택함을 받은 백성들로 인식을 했다. 하지만 동시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자 자신의 삶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경험했다. 연구 참여자의 자기의 부인은 남한에서의 자기 실패와 자신의 이기심을 버렸을 때 일어났고 참여자들은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다.

“사역장의 팀장을 맡았을 때는 돈 때문에 했습니다. 사역비를 조금씩 횡령하기 시작했어요. 1년쯤 모으니 3000위안이 되었어요. ‘너는 도둑이야.’ 저는 그게 양심인 줄 알았는데... 계속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내어 놓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했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오는지 통곡을 하며 울었어요. 그때 저를 감싸는 따스한 기운을 느끼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연구 참여자, 3)

### (4) 모순을 일깨운 하나님의 사랑

연구 참여자들의 이와 같은 극적인 변화에는 참여자들의 모순에 대한 자각이 있었고 그 자각은 스스로 생성했다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주체사상을 가장 과학적인 사상으로 받아들였기에 복음을 수용한 후에도 이를 버리지 못했으나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 이후에 모순을 직시했다. 이러한 인식은 성경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핵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성경이 주체사상을 배웠다고 생각했지만, 후일 주체사상이 성경을 복사한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랑만큼은 복사하지 못했다는 것을 각성했고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은 성령체험으로 이어졌다. 그들은 성령체험을 하자 자신들이 신봉한 과학적 지식과 이성이 얼마나 무력한 것을 깨달았고 오만과 아집으로 뭉쳐진 자신의 삶을 바꿨다고 구술했다.

“기독교 신앙이 내 운명의 주인 자리를 내어 놓는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전혀 그렇게 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제 생각 제 계획대로 했습니다. 제 인생이 제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는 데 10년이 걸렸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서야 제 주인 자리를 내어드렸고 순간순간 의지하며 그 자유로움과

평안함을 맛보고 순간순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점차 의지하는 삶으로 굳건하게 되었지요.” (연구 참여자, 4)

### (5) 위대한 체념 후 축복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 자기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자 생명수가 쏟아 올랐고 지혜가 생겼다고 구술했다. 이러한 것은 세상에 대한 체념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그 체념은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고 자신이 지녔던 인간적인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탈북과정과 중국에서의 삶은 물론 남한에서의 삶은 매일 매일이 기적이라고 구술했다. 북한으로 송환될 위기에 처했을 때, 국경이 막혔고, 남한에서 등록금이 없어 등록을 포기하고자 할 때, 교회 지인으로부터 지원이 있었다. 이런 하나님의 도움은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난다고 구술했다. 이러한 기적은 자신에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의지했을 때 일어났으며 삶은 천국으로 변했다고 구술했다.

“2011년 12월에 10년 형기가 만기되어 도문까지 끌려와 복송되는데... 착잡함은 이루 말 할 수 없었지요. 그런데 김정일의 사망으로 국경이 폐쇄되어 다시 연길구치소로 돌아왔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이 일어나 국적 불명자로 처리되어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하나원을 나오는데 10년 감옥생활을 하고 나니 아무것도 안하고 2년쯤 폭 쉬고 싶었는데... 벌써 신학대학 등록금이 준비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연구 참여자, 5)

### (6) 순종을 통한 무한 자유

연구 참여자들의 체험에 의하면 하나님에게 순종은 복종이나 구속이 아니라 자유였고 능력으로 이어졌다. 연구 참여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출석하고 있음에도 예수님의 순종을 닮지 못했다고 느꼈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초기에 그들의 기도는 남한에서 안정적인 생활이었지만 점차 예수님의 순종으로 바뀌어 갔고 이러한 과정에서 교만함은 사라지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게 되었다. 모든 연구 참여자들은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베푼 사랑 속에서 자유를 느꼈다고 자신들의 체험을 구술했다.

“먼저 믿은 한사람은 그 집안의 순교자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았다면 나의 과거의 아픔과 고통에서 헤어 나올 수 없었을 것이며, 사랑하는 가족을 찌르는 흥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승리하신 주님께 나를 맡겼을 때 그 평안을 경험해 본 사람만

이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연구 참여자, 11)

#### 4. 교회공동체의 회복

##### (1) 생존을 위해 선택한 교회

연구 참여자들은 도구적 목적으로 교회를 선택했다. 중국에 있을 때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고 생존을 위해 가장 안전한 곳이 교회였다. 하지만 몸은 교회에 의탁했으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마음은 세상을 향했다.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도 없이 교회가 주는 안락함과 편안함으로 살아갔다.

“탈북 초기, 심양에서 노숙하다가 교회에서 밥 준다는 말에 배고픔을 달래려 무작정 교회로 따라 갔습니다. (중략) 목사님은 저를 양아들로 삼아 주셔서 6개월쯤 한집에서 살았어요. 제가 부정적인 마음을 많이 갖고 있었으니 얼마나 저를 가르쳤는지 모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성경이 진리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성경을 보는 것은 그렇게 곤혹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연구 참여자, 1)

##### (2) 높은 기대로 인한 실망

연구 참여자들은 생존을 위해 선택했지만 교회에 많은 기대를 했다. 참여자들이 경험한 교회는 지지도 있지만, 북한이탈주민이란 편견이 있었고, 교회 내부에도 빈부격차가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교회 밖으로 나가고자 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의 믿음은 현금으로 책정된다는 오해를 가졌고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교회활동에 빠져 연락을 하면 지나친 요구와 간섭으로 받아들이기도 했다.

“교회 안 나오면 나와야 한다고 하고 꼭 주일 예배는 참가해야 한다고 하는 게 불편했어요. 교회 왜 안 왔냐고 연락 오는 것도 불편했어요. 교회에 가고 싶을 때 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일을 지켜야 한다고 하니깐 거부감이 느껴지더군요.” (연구 참여자, 12)

##### (3) 피해의식

연구 참여자들은 도구적 목적에서 교회를 선택했지만 다시 기독교와 성경에는 속지 않겠다는 저항감이 있었다. 연구 참여자는 자신들의 삶이 원한과 분노에 가득하고 사랑을 배우지 못한 삶으로 의미를 구성했다. 따라서 교회에서도 쉽게 분노했다. 투쟁과 적대적 저항만 배웠기에 이해보다는 분노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위축된 정서도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남한 교인들처럼 교회에 헌

금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많았다. 교회에서는 그들의 헌금액수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지심을 느꼈고 이런 자격지심은 소외감으로 이어졌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은 남한 교회에 낀 개밥에 도토리 같다는 인식을 했고 목사가 원수를 사랑하는 메시지를 전하자 북한 정권이 떠올라 갈팡질팡하는 경험을 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교회공동체 내에서도 피해 의식이 있었다.

“교회 가면은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헌금을 많이 강조하면 부담스러워요. 북한에 가족들에게 매달 송금을 하면 쓸 돈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헌금을 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주눅이 듭니다.” (연구 참여자, 9)

#### (4)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발견한 신비함

연구 참여자들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갈등하고 있을 때 자신들이 만난 하나님의 사람을 떠올렸다. 참여자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을 만났다. 남한에서 편히 살 수 있는 직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신변의 위협을 무릅쓰고 중국에서 선교를 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타적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생존을 위하여 오로지 이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연구 참여자들에게 이타적 삶은 생소한 것이었다. 특히 중국 당국의 박해를 무릅쓰고 탈북자를 보호해준 조선족 목사의 실천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했고, 남한에 온 후에는 하나님 모습을 닮은 탈북민 목사를 보고 자신도 감화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체험은 교회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졌다.

“같은 탈북민인데 K목사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고 계시더군요. 이분의 설교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고 이 분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도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더군요.” (연구 참여자, 12)

#### (5) 사랑으로 회복한 교회 공동체

연구 참여자들은 교회 역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실망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 사람에게에는 실망한 경험도 있으나 하나님에게는 한 번도 이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았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관계가 불편한 교인이 있어도 교회 생활이 좋았고, 또한 자신이 겪는 고통과 불행을 마음속으로 공허히 여기고 가슴 아파하는 교우들의 사랑이 눈에 들어왔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가슴이 증오와 분노 적개심으로 꽉 찼으나 교회에서 사랑과 지지를 받은 후에 다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생성되었다고 구술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런 과정을 거쳐 교회 공동체를 회복했다.

“목사님이 전세 집을 빼서라도 신학대학을 보내주겠다고 말을 듣고 이들은 운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부모에게 십전을 달라고 해도 힘들었는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 등록금을 대주고 학교를 보내준다니! (중략) 세상에서 부모도 나의 존재를 인정해주지 않았는데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시고 자녀로 받아주셨으니 행복합니다.” (연구 참여자, 10)

## 5. 전도자로서의 천로역정

### (1) 복음 맥락에서 정체성 재구성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은 북한 복음화와 통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신대원 입학과 교회 개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한 통과의례이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삶을 북한정권의 피해자라고 생각했으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차원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했을 때 자신은 주체사상이란 죄에 끌려다닌 삶이었다고 의미를 구성했다. 이러한 정체성은 초기에 성경을 과학과 이성으로 해석하려던 인본주의 관점에서 벗어나 성경의 핵심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하는 관점으로 전환이 일어났다.

“주체사상은 당과 수령에 충성을 다하고 죽도록 목에 매어 끌려가야만 하는 노예 굴종 사상입니다. 북한의 인텔리들 배운 사람들은 북한의 허구성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과학으로 해석하니 창세기 1장부터 믿을 수가 없었어요. (중략)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고 정체성을 재구성하고는 성경을 읽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더군요.” (연구 참여자, 11)

### (2) 살아있는 기적의 증거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회심과 복음수용은 오늘날의 기적이라고 구술했다. 참여자들의 의미구성에 의하면 주체사상과 유물론적 세계관에 물든 사람들은 인간을 중심에 놓고 정치 투쟁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로 믿었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약함으로 받아들여졌고 세상과의 타협으로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구술했다. 연구 참여자들의 회심은 기적이 없어졌다고 믿는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기적이라고 구술했다.

“중국과 한국의 삶의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려고 수차례 시도했었는데 마지막 한 가닥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건 기적이었지요. 나 같은 상처 많은 탈북여성들, 중국 땅에서 물건처럼 팔려 다니는 여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고 싶어요.” (연구 참여자, 10)

### (3) 예루살렘의 회복, 북한 복음화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일어난 기적이 북한 주민들의 삶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었다. 외국 유학의 길을 포기하고 탈북민 교회를 개척했으며 개척교회는 어렵다는 말보다는 이미 자신들의 삶이 기적을 체험한 삶이었기에 도전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남은 삶은 오로지 하나님과 북한 복음화를 위한 삶이다. 그들은 북한 복음을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으로 의미를 구성하고 있다.

“목회자다운 목회자, 교회다운 교회 하고 싶습니다. 북한 분들이 바라봤을 때 교회란?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야 할까? 사랑이지요. 말로만 하지 말고 이렇게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감동할 수 있도록 (중략) 평양에 대성지역에 가서 하고 싶습니다.” (연구 참여자, 7)

### (4) 일사각오의 선교의지

참여자들은 북한으로 들어가는 길이 막혔으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선교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선 자리에서 죽고자 할 때,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생기고 또한 사는 길이 생김을 체험으로 알고 있었다. 이러한 기적과 순종의 체험은 일사각오의 선교의지로 구체화 됐다.

“오래 전부터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 지하교인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야기 할 수는 없습니다.” (연구 참여자, 밝힐 수 없음)

### (5) 이 땅에서 천국 건설

연구 참여자들의 개척교회는 대부분 미자립 교회이다. 참여자들은 이 길이 가시밭길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꽃밭으로 변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들의 몸은 지하교회에 어두컴컴하고 습기 찬 곳에 있지만 영혼은 찬란한 하늘나라에 있음을 체험하고 있으며 북한에서의 기아의 고통, 중국에서 신변 불안과 떠도는 삶을 비교할 때, 자신의 누울 자리와 굶어 죽지 않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커다란 선물이라고 의미를 구성했다. 혹독한 고난을 극복했기에 연구 참여자들은 남한 주민들이 사소하게 생각하고 불편으로 생각할 것도 커다란 선물로 받아 들였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초창기에 지녔던 세상으로의 길을 포기한 후에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교회 개척할 때 돈이 없다보니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 서울 번두리에 지하를 얻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모자라 직접 공사를 하느라 오래 걸렸습니다. 비록 지하지만 천국이 따로 없었고 자식보다 교회를 더 사랑했고 행복했습니다.” (연구 참여자, 6)

##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탈북민 목회자들의 기독교 복음수용과 목회자 길을 선택 한 후, 사역에 이르기까지 체험을 콜라지의 체험적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연구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탈북민 목회자들의 체험은 '사상과 진리의 전쟁', '좁은 길과 넓은 길', '하나님과의 만남', '교회 공동체의 회복', '전도자로서 천로역정'이라는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이와 같은 모든 연구결과를 정리할 수 있는 현상학적 대 주제는 주체사상과 유물론 그리고 여기서 파생한 인본주의 사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재구성하고 북한복음화와 선교에 헌신하는 삶으로 정리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기독교 복음을 수용했지만 골수까지 침투한 주체사상과 유물론적 사고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탈북민 기독교인들은 종교를 아편으로 규정하고 무신론적 세계관을 교육시키는 북한의 교육을 받아 영적세계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며 이러한 학습은 기독교 복음수용과 회심에 가장 큰 장애로 작동한다(조해준·송차호, 2019; 이순영 외, 2015). 선행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영향만을 보고했을 뿐 그 극복 과정과 결과는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 의하면 연구 참여자들은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기로에서 서서 성장이 정체 되었으나 스스로 개척이라는 십자가를 짊어졌다. 이러한 그들의 결단은 자신의 삶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러한 체험이 순종과 결단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본 연구 참여자들 역시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생존을 위해 기독교를 선택하기도 했다(이순영 외 2015; 전명희 외 2019; 임정민, 2012). 또한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교회공동체내에서 갈등과 반목을 경험하기도 했다(박예영, 2016).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은 그간 자신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교회 공동체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체험함으로써 교회공동체 내에서 갈등을 극복하고 성장을 이루었다. 이들의 성장에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역이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남한 기독교인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 북한이탈주민들 중 목회자, 일반교인을 막론하고 한국교회 공동체에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찌면 갈등과 불화가 통과되리라 수 있다. 이로 인해 교회를 떠나는 탈북민 기독교인들도 다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기독교인의 헌신적 노력을 통해 참여자들은 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회복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 사회 적응의 모판은 교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연구에 나타난 바와 같이 탈북민 목회자들의 신학공부와 교회 개척은 남한 교인들의 절대적 도움이 있었다. 탈북민 목회자들의 개척을 돕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건립한다는 것이 아니라 북한 복음화의 주춧돌을 놓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선교는 통일 후의 일이 아니다. 지금 준비해야 할 과업이며 이를 위해서는 탈북민 출신 목회자를 지원하고 그들의 선교적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연구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들은 초기에 북한의 주체사상과 북한의 생활총화와 남한의 교회생활을 구분하지 못했다. 복음의 불모지대에서 성장하고 교육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박병애(2020)의 연구에는 탈북민 목회자 중 중국에 체류했던 한 목회자는 조선족 교회에서 하얀 성의를 입은 목사를 보고 귀신을 본 줄 알고 기절했다는 일화가 등장한다. 그 역시 북한에서 교육 받은 사람이었으나 기독교에 대해서는 이토록 무지했다. 북한 정권은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을 내세우며 기독교 역사를 휘절 시켰고 악의적 인식을 심어주었다. 이로 인해 북한 주민들이 복음을 수용한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기적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남한 주민과 교회에 의한 전도도 필요하지만 탈북민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한 북한이탈주민 선교전략이 필요하다. 탈북민들은 태생적으로 남한 주민들과 이질감을 느낄 수 있다. 때로는 남한주민들의 호의도 왜곡해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삶은 지속적으로 억눌리고 피해를 당한 삶이었기에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 일수도 있다(이재관, 2022).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탈북민 출신 목회자들의 선교는 그들의 저항감과 거리감을 없애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탈북민 출신 목회자들에 대한 지원은 물론, 탈북 신학생에 대한 한국교회 차원에서 장학금 지원 등 세밀하면서도 집중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 고 문 헌

- 공기인 (2020). **북한이탈주민의 생애사 연구를 통한 평양시 노동자들의 직업정체성 변화연구**. 박사학위논문. 송실대학교.
- [Ghong K. I. (2020). *A Study Using Life History Research of North Korea Defectors about their Changes of Occupational Identity While Living in Pyoungyang City*. Doctoral Dissertation. Soongsil University, Seoul, Korea]
- 권오성 (2022). **북한이탈주민의 회심 과정에 관한 사례 연구- 초월적 존재의 도우심과 깨달음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송실대학교.
- [Kwon, O. S. (2022). *A Case Study on the Conversion Process of North Korean Defectors: Focusing on the Help and Realization of Transcendental Beings*. Doctoral Dissertation. Soongsil University. Seoul, Korea]
- 김경숙 (2018). 탈북여성의 가정폭력 경험과 트라우마에 관한 연구. **한국기독교 상담학회지**, 29(3), 53-94.
- [kim, K. S. (2018). A research on the domestic abuses experiences and the trauma of North Korean women refugees, *Korean Association of Christian Counseling & Psychology*, 29, 3, 53-94.]
- 김승철 (2004). **역사적 쉐라이어마허 연구**. 서울: 한들
- [Kim, S. C. (2004). *Historical study on Friedrich Schleiermacher*. Seoul: Handeul]
- 박병애·하충엽 (2019). 로젠탈(Rosenthal)의 생애사 연구 방법을 활용한 탈북민 사역자의 복음수용 과정 분석. **선교신학**. 55, 157-195.
- [Park, B. A. & Ha, C. Y. (2019). An Analysis of the Conversion Process of a North Korean Defector Church Worker by the Rosenthal's Life History Research Methodology. *Theology of Mission*, 55, 157-195.]
- 박병애 (2020). **탈북민 목회자의 생애사 분석을 통한 복음 수용성 연구-mandelbaum 분석방법론 적용**, 박사학위논문. 송실대학교.
- [Park B. A. (2020). *A Study on Receptivity of North Korean Defected Pastors. -an application of mandelbaum life history analysis*. Doctoral Dissertation Soongsil University. Seoul, Korea]
- 박예영 (2016). **탈북민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체험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 
- [Park, Y. Y. (2016). A Study on the *Conversion Experience of the North Korean Christian Refugees*. Masters Dissertation.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Theology.]
- 송영섭 (2016). 디아스포라(Diaspora) 관점으로 본 탈북민 이해와 선교적 의미. **개혁논총**, 37, 131-158.
- [Song, Y. S. (2016). Understanding of North Korean Refugee in Diaspora Perspective & Its Missiological Meaning. *The Society of Reformed Theology*, 37, 131-158.]
- 유영권 (2005). 탈북자들의 적응 스트레스와 목회상담적 대처방안. **한국기독교 상담학회지**, 9, 177-220.
- [Yoo, Y. K. (2005). North Korean refugees' adaptation stress and pastoral counseling measures. *Korean Association of Christian Counseling & Psychology*, 9, 177-220.]
- 윤현기 (2004). **북한주민의 종교의식 변화를 위한 선교전략**. 석사학위논문,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신학연구원
- [Yoo, H. G. (2004). *A mission Strategy for Changing the Religious Consciousness of North Koreans*. Masters Dissertation. Asia United Theological University, Theological Research Institute]
- 이근무·이혁구 (2019). 도박중독회복자들의 낙인극복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남성 회복자들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연구**. 50(3). 223-259.
- [Lee, K. M. & L, H. G. (2019). A Phenomenological study on overcoming stigma of recovering gambling addicts: Focusing on male recovering gambling addict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vol. 50(3). 223-259.]
- 이남인 (2004). **현상학과 해석학: 후설의 초월론적 현상학과 하이데거의 해석학적 현상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Lee, N. I. (2004). *Phaenomenologie und Hermeneutik: Transcendental phenomenology and Heidegger's hermeneutic phenomenology*.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이남인 (2007). 현상학적 사회학. **현상학과 현대철학**, 33, 5-39.
- [Lee, N. I. (2007). Phenomenological Sociology, *Phenomenology and Modern Philosophy*, 33, 5-39.]
- 이남인 (2012). 현상학적 환원과 현상학의 미래. **현상학과 현대철학**, 54, 89-121.
- [Lee, N. I. (2012). Phenomenological Reduction and the Future of Phenomenology, *Phenomenology and Modern Philosophy*, 54, 89-122.]
- 이선호 (2020). 북한 교회 실상과 기독교 탄압. **북한**, 58, 56-61.
- [Lee, S. H. (2020). The reality of the North Korean church and the persecution of Christians, *North Korea*, 58, 56-61.]

- 이수원 (2011). 북한 주체사상 학습체계의 종교성 연구: 기독교 종교 활동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통일문 제연구**, 23(1), 311-344.
- [Lee, S. W. (2011), A study about religious trait of Juche ideology learning system in North Korea: Focused on comparison with Christian religious activities-, *Unification problem research*, 23(1), 311-344.]
- 이순형·최연실·진미정 (2015). **북한이탈주민의 종교경험**.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Lee, S. H., Choi, Y. S. & Jin, M. J. (2015), *Religious experiences of North Korean refugees*, Seoul National University Publishing & Cultural Center.]
- 전우택·조영아 (2003). 탈북자들의 신앙 경험과 교회의 통일 준비. **통일 연구**, 7(2), 105-128.
- [Jeon, W. T., Cho, Y. A. (2003), Religious Experiences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and the Role of Churches for the Korean Unification, *Korean Unification Studies*, 7(2), 105-128.]
- 조성봉·김경숙·정숙희·전명희 (2018). **탈북민의 신앙발달 및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개념도 방법을 중심으로[학술대회]**. 한국기독교상담학회 추계학술대회, 서울.
- [Cho, S. B., Kim, K. S., Jung, S. H. & Jeon, M. H. (2018).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the Faith Development and Growth of North Korean Refugees: Focusing on Conceptual Map Methods. [Academic Conference]*. Fall Conference of the Korean Christian Counseling Society, Seoul.]
- 북한 인권정보센터(NKDB) (2019). 북한종교자유백서. **북한 인권정보센터**.
- [Database Cente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2019). North Korean Religious Freedom White Paper. *North Korean Human Rights Information Center*.
- 남북하나재단(2014).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 [North-South Hana Foundation (2014). Survey on North Korean Defectors]
- Colaizzi, P. F. (1973). *Reflection and Research in Psychology: A phenomenological Study of Learning*, Dubuque, LA: Kendal Hunt Publishing.
- Colaizzi, P. F.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Denzin, N. K. (1978). *The Research Act: Theoretical Introduction to Sociological Methods*. New York. McGraw-Hills.
- Jung J. H. (2019). "Migration and religion in East Asia: North Korean migrants' evangelical encounters." New York City, NY: Springer
- Liebow, E. (1993). *Tell Them Who I Am: The Life of Homeless Woman*. New York. Penguin,

142-143.

Lincoln, Y. S. and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Miles, M. B. and Huberman, A. M. (1994). *Qualitative Data Analysis: A source book of new methods*. Thousand Oaks, Sage

Rambo, L. R. (1993). *Understanding religious conversion*. Yale University Press.

Volf, M. (2019). *“Exclusion and Embrace, Revised and Updated: A Theological Exploration of Identity, Otherness, and Reconciliation.”* Nashville, Tennessee: A bing Press.

# 탈북민 목회자들의 회심에 대한 콜라지(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

##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Conversion of North Korean Defector-Pastors: Using Colaizzi's Method

박병애(숭실대학교)

### 논문초록

본 연구는 탈북민 목회자들의 복음수용과 성장 그리고 교회 개척에 대한 연구이다. 연구에서는 탈북민 목회자들의 체험 속에 나타난 기독교 복음의 의미와 본질을 규명하고자 했다. 본 연구에는 탈북민 목사 6명과 전도사 6명, 총 12명의 목회자들이 참여했다. 자료는 일대일 심층 면담을 수행하여 구성했다. 연구자는 콜라지(1978)가 제안 한 체험적 현상학적 연구방법에 따라 자료를 분석했다. 자료 분석 결과 95개의 주제, 24개의 주제 결집을 도출했고 이를 5개의 범주로 결집했다. 이를 다시 사상과 진리의 전쟁, 좁은 길과 넓은 길, 하나님과의 만남, 교회 공동체 회복, 전도자로서 천로역정 범주에 재배열하여 참여자들의 체험의 의미와 구조를 기술했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북한선교와 탈북민 목회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실천신학 차원에서 구체적 제안을 했다.

**주제어 :** 탈북민 목회자, 회심, 콜라지 현상학적 연구, 북한 선교, 북한이탈주민 선교